



설명자료



2020년 2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황성철(2555)
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 과장 곽진(043-719-9100), 연구관 김성순(9101)/ 제공일: 2월 2일(2매)

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) 인체 감염 환자 사례 없음 - '11.5월 이후 가금에서 동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음 - [이데일리 2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)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
 - 또한, 가금에서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음
- 아울러, 유럽·중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가금(가금부산물 포함)을 전면 수입금지 중임
- 최근 국내 철새 다수 서식(1월 기준, 163만수), 유럽·중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- (당부사항) 가금 사육 농가에게 축사 진입로 생석회 도포, 축사 내·외부 소독, 그물망 정비, 발판소독조 운영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
- '20.2.2일 이데일리 온라인판 <엮친 데 덮쳐...신종 코로나 발원지 인근서 조류독감 발병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우한폐렴)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인근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(H5N1) 발병
 - 조류독감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, 드물게 인간에게 전염
 -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잘 전염되지 않지만 치사율이 50%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, 질병관리본부의 입장

-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)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
 - 또한, 가금에서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음
- 아울러, 유럽·중국 등을 포함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살아있는 가금과 가금부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음
-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철새 다수 서식(1월 기준, 163만수), 유럽·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등에 따라,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철새도래지 방역(차량통제와 소독), 예찰검사(가금·야생조류)강화,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대상 점검 등 차단방역을 조치 중임
 - 가금 사육 농가에게 축사 진입로 생석회 도포, 축사 내·외부 소독, 그물망 정비, 발판소독조 운영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